

사회

‘도가니’ 후유증 손배소송 간다

법률지원단 “성폭행은 청구 시효 지났지만 정신적 후유장애는 가능”

관리책임 광주시·광산구·교육청 상대 민사소송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광주경찰청 인화학교 무료법률지원단’(이하 무료법률지원단) 이 명숙 변호사와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에 따르면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 학생 10여명의 부모들과 합의를 거쳐 가해자와 인화학교 운영 재단을 상대로 피해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집단 민사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광주시와 광산구청, 시교육청에 대한 민사소송도 검토 중이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해도 소멸시효 조건이 완성된다. 즉, 실정법상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인화학교 운영법인을 상대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미 손해배상 청구시효가 지난 성폭행 피해와는 별개로 피해

학생들이 지금까지 겪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성 후유장애는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또 당시 가해자와 합의했던 학부모들도 피해학생들에게서 새로운 후유장애가 발견되면 추가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무료법률지원단은 실제 청소년기에 성폭행을 당한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할 유사 관계가 있어 소송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을 제기할 피해 학생수와 소송 금액은 무료법률지원단, 피해학생 학부모, 인화학교성폭력 대책위 등이 전문의와 협의한 뒤에 정할 계획이다. 무료법률지원단은 또 인화학교를

운영중인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허가 취소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학교를 운영중인 재단측에서 허가 취소 통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판에서 승소가 확실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명숙 변호사는 “대책위가 피해 학생 학부모들과 얼마나 빨리 소송추진 여부에 대해 합의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합의가 이뤄지면 이르면 다음 주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박찬동 집행위원장은 “별도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심야 도심 공원 호수에 웬 낚시꾼?

“풍암호수서...” 잇단 민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심야 도심 공원 호수에 낚시꾼이?’
광주의 한 공원 호수에서 불법으로 낚시를 하는 시민들이 끊이지 않아 관할 자치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12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중년의 남성들이 풍암호수에서 낚시를 즐기는 것을 목격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최근 잇따라 접수됐다.

주민들은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 풍암호수에서 낚시를 하는 남성들 때문에 호수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고,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말했다. 풍암호수는 서구가 관리하는 도시 공원인 중앙공

원에 위치한 호수로 붕어와 배스 등의 어류와 자라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중이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당국의 허가 없이 도시공원에서 동물을 포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구는 풍암호수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낚시 금지’를 알리고, 관련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 낚시 행위를 막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일부 주민들이 낚시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 관계자는 “도시 공원의 호수에서 동물을 포획하다가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주민 모두의 공간인 만큼 낚시 행위를 삼가 달라”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몸 팔아서 돈 벌어라”

남부경찰, 악플 고려대 휴학생 모욕 혐의 입건

인터넷 게시판에 ‘악플’을 남긴 명문대생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남부경찰은 12일 인터넷 포털 게시판의 글에 악성 댓글을 작성한 이모(21·광주시)씨를 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3시에 ‘일을 하다가 다친 아버지가 산재보험 심사에서 탈락해 고민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박모(여·24)씨의 포털 사이트 게시물에 “몸 팔아서 돈 벌어라. 산재가 거지

들 밥 먹여 주려고 있는 줄 아느냐”는 댓글을 남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고려대를 다니다가 휴학하고, 현재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 같은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 이씨는 “아무 생각 없이 댓글을 적었다. 박씨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12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도서관에서 열린 ‘2011 하반기 외국인투자기업 대학교 채용설명회’에 학생들이 자리를 모두 채워 열린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취업에 쏠린 눈

매곡동 대형마트 설계 건축사

경찰, 기소 의견 검찰에 송치

설계 도면 일부와 달라 건축사들 “위반 없다”

광주 북부경찰은 주민감사청구 결과 건축허가가 취소된 광주시 북구 매곡동 이마트를 설계한 건축사 3명의 일부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부터 북구가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지난 8월 고발한 건축사 3명에 대해 매곡동 대형마트 설계와 관련,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 조사결과 지표면 산정, 건물 용도 분할 등 건축사들이 당초 설계한 도면과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도면의

내용이 일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건축사들은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설계상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건축과정에서 수정하면 된다. 건축허가 자체를 취소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마트 측은 조만간 회사차원에서 광주시와 북구의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형 마트는 한 개발업체가 1년여 행정소송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11월 건축허가를 받고 난 후 이마트로 넘겨졌으나 이 과정에서 인근 학교와 중소상인 반발, 우회입점 논란 등 반발과 갈등이 빚어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곽노현 교육감 보석 청구 기각

법원 “증거 인멸 우려”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낸 보석 청구가 1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곽 교육감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곽 교육감에게 죄중(범죄의 증거)을 인멸하거나 그럴 열려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 청구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당분간 구속상태로 있게 되며, 1심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곽 교육감의 직무 집행은 계속 정지된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와 마찬가지로 곽 교육감이 구속상태에서 벗어나면 사건 관계자와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없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은 또 곽 교육감에 앞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가 낸 보석청구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곽 교육감은 작년 6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진영의 후보로 나왔다가 단일화에 합의해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 교수에게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연희스

조선대 이사회 총장 선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서재홍 교수

조선대 총장 선거과정에서 이사회에 복수추천됐으나 탈락한 서재홍(62·의학과) 교수가 이사회 결정에 불복, 법적 대응에 나서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광주지방법원과 조선대 등에 따르면 서 교수는 이날 광주지방법원에 이사회 의결 효력 정지 및 총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 교수는 대학 게시판에서 “이사회 의결의 절차적 문제점과 구성원의

의견을 위변한 이사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부 구성원간 갈등 양상으로 변질된 총장 선거에 대한 논란은 법원 판단에 따라 판가름나게 됐다.

이번 조선대 총장 선거에서는 서 교수가 본선제 1위를 차지했으나 이사회에서 2위 득표자로 복수추천된 전호중 현 총장이 최종 선출되면서 서 교수와 지지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희정기자 chae@kwangju.co.kr

미셀 위 씨 ‘광고 사기’ 연루 조사 받아

유명 프로 골퍼인 미셀 위(22)의 아버지 위병욱(48·하와이대 교수)씨가 2억원대의 광고 사기 사건에 연루돼 지난 8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1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고소인인 건설업체 ㈜시티원은 2009년 미셀 위 씨의 국내 에이전트를 자처하는 최모(56)씨와 3억원에 미셀 위 씨의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시티원은 2억원을 최씨에게 먼저 전달하고 선물 차원에서 미셀 위 씨에게 연루돼 지난 8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미셀 위 씨의 광고 촬영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위씨는 “최씨가 몇 번 (말의) 국내 활동을 도와준 적은 있지만 계약 관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연희스

임신 직원에 막말

남구청 과장 좌천

임신한 직원에게 막말을 한 광주시 남구청 간부 공무원(광주일보 10월 4일 6면)이 의회로 전보 조처됐다.

광주시 남구는 직원들에게 폭언을 해 물의를 빚은 구청 소속 A과장(5급)과, A과장의 업무지시에 항의하며 말싸움을 한 직원 B(7급)씨를 전보 조처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남구 공무원노동조합은 A과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남구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징계는 시에서 이뤄지는 규정에 따라 광주시에 A과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친구집서 현금 등 훔친 통근 10대

○ 광주 북부경찰은 12일 친구 집에 침입해 거액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A(15)양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 A양 등은 지난 2일 오후 3시에 광주시 북구의 신모(여·45)씨 집에 침입해 5만 원권 140장(70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일주일 동안 4차례에 걸쳐 현금 1040만원과 귀금속 4점 등 1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 이들은 같은 학교 친구인 신씨의 말 B(15)양이 지적 장애 2급인 점을 이용해 “너희 집에서 함께 놀자”며 B양을 따라간 후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A양 등은 가을 후문이 떨어지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예약접수 중 **선배 합격자가 말한다!** **개강: 11월 1일**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공·민]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격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서기보** **7급 검찰직** **법원소장직(전문)** **한빛고시학원** **전문부서관** **9급 아간반** **농업직/기술직** **사회복지직** **평론/강력문제**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